

AI거품론·미중갈등 악재?... “중장기적 ‘K-반도체’에 유리”

8월 이후 삼성·SK 주가 하락세 호재에 ‘둔감’ 악재 ‘민감’ 급등락

증권가 “미중 AI경쟁 이슈 반복 답시크 사태 연상, 실력차 여전”

#엔비디아의 지난 2분기(5~7월) 매출이 1년 전보다 50% 이상 뛰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거품이 꺼질 지 모른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이 월가 추정치(414억 4000만 달러)보다 낮은 411억 달러(57조원)에 그쳤고,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에 저사양 AI칩 “H20”을 전혀 팔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AI 반도체 자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AI 칩 자체 개발에 이어 딥시크의 화웨이 칩 도입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이 미국 중심의 AI 기술 생태계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상부무는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만에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 반입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SK하이닉스 전경.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K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겹악재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AI거품론, 트럼프 정부의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반입 제한, 중국의 AI반도체 자립 본격화 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22% 상승한 6만 9100원에, SK하이닉스는 1.76% 오른 26만500원에 마감했다. 전날만 해도 각각 3.01%, 4.83%씩 급락했다. 8월 이후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는 가운데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해하며 급등락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악재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VEU 지위가 철회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은 향후 중국 공장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등을 반입

할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별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라인과 공정들은 국내에서 생산·투자 계획이 돼 있고, 중국 지역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단기적인 VEU 폐지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정책이 과거와 같은 되돌림(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알리바바가 자체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악재다. 알리바바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수급도 요동쳤다. 외국인인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836억원, 1021억원씩 순매도했지만, 2일에는 다시 1324억원, 1112억원씩 사들였다.

증권가는 이들 악재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디램(DRAM), 낸드 생산량 축소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디램, 낸드(NAND) 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기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중간 AI기술 경쟁 구도에서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견제로 투자심리를 흔드는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도 “이는 지난 1월의 딥시크 사태를 연상케 한다. 미중간 실력차는 여전하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마스가 예산계획 구체화 ‘조선株 강세’

한화오션, 5.84% 상승 12만3200원
삼성중공업 1.2%, 대한조선 0.99% ↑

한미 조선업 협력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전 거래일 대비 5.84% 상승한 12만 32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장중에는 12만3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중공업(1.20%), 대한조선(0.99%), HD현대중공업(0.78%) 등 조선주 전반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의 합병 소식이 더해지며 주가가 강세



지난 2월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200번째 LNG운반선. /한화오션

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최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양사는 향후 임시 주주총회 및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다.

케이에스피(6.06%) 에스엔시스

(0.02%) 등 조선 부품·기자재 종목도 오름세를 보였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국내 조선업 훈풍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조선업 분야 예산이 확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날 러스 보우트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BM) 국장의 제리 헨드릭스 보좌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화 필리조선소 사진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국장의 강력한 예산 지원으로 곧 군사적 측면에서의 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헨드릭스 보좌관은 백악관의 ‘조선업 사무소’의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한화에 군함 발주를 예고한 것과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하은 기자

4933개 금융사 자산·부채현황 ‘한눈에’

금감원, 금융산업 데이터 시각적 탐색 동적 시각화 분석시스템 ‘DIVA’ 공개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동적 시각화 분석시스템(DIVA·Dynamic Interface for Visual Analysis)’을 3일부터 정식으로 공개한다. 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시간·회사·계정 세 축으로 연결해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기존 표 형식으로만 제공되던 금융통계정보 시스템(FISIS)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2일 “DIVA는 총 4933개 금융회사와 1만5438개 계정 항목, 약 5000만 개 데이터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며 “데이터를 내려받아 직접 가공할 필요 없이 인터페이스 조작만으로 금융사의 자산·부채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DIVA의 핵심은 3차원 데이터의 연계 분석이다. 시간축은 시계열 그래프

로, 회사와 계정 축은 ‘트리맵(Treemap)’ 인터페이스로 구현됐다. 예컨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계정을 선택하면, 은행별 주택대출 잔액과 증가율이 박스의 크기와 색상으로 표시된다. 증가율이 높은 은행은 빨간색, 낮은 은행은 파란색으로 나타나 직관성을 높였다. 동시에 시계열 그래프에서는 해당 은행의 주택대출 증가율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드릴다운(drill-down)’ 기능은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탐색하는 데 적합하다. 특정 자산·부채 항목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회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사의 다른 계정 변동과 중장기 흐름까지 연계 분석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내 특정 자산·부채 급증의 원인 기업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 기업의 다른 재무 지표까지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FISIS는 통계표 중심이어서 이용자가 데이터를 내려받아 엑셀 등으로 정리해야 했다. /허정윤 기자

‘TIGER 美 S&P500 ETF’ 순자산 9조 돌파

미래운용, 국내 ETF규모 1위 차지
애플 S&P500 추종 ETF ‘최대규모’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 S&P500 ETF’ 순자산이 9조원을 돌파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은 9조 1209억원이다. 국내 전체 ETF 1위 규모이자, 아시아에 상장된 전체 S&P500 추종 ETF 중 최대 규모다.

최근 미국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며 ‘TIGER 미국S&P500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일 기준 연초 이후 ‘TIGER 미국S&P500

ETF’의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1조 3825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 1위를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도 ‘TIGER 미국S&P500 ETF’에 대한 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대형 기술주의 견조한 실적,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 ETF’는 단기 투자처가 아닌 미국 대형주 중심의 안정적 성장성과 분산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장기 투자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대표지수 ETF 적립식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 해당 월의 ‘TIGER 미국 S&P500 ETF’ 혹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매수 인증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TIGER ETF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 부문 대표는 “‘TIGER 미국S&P500 ETF’는 상장 이후 꾸준히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ETF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TIGER 미국S&P500 ETF는 아시아 최대규모 S&P500 ETF로서,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장기 투자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운용, RISE 위클리 커버드콜 ETF 2종

국내 가치주·中 성장주에 투자

KB자산운용이 국내 가치주와 중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위클리커버드콜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KB자산운용은 ‘RISE 차이나테크TOP10 위클리 타겟 커버드콜 ETF’와 ‘RISE 코리아밸류업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상장하는 두 ETF는 각각 중국 대표 성장주와 국내 저평가 가치주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변동성 완충 ▲안정적 수익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RISE 차이나테크TOP10 위클리 타겟커버드콜ETF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경기소비재 3개 섹터 내 테크 관련 10종목에 집중 투자해 중국 테크주 모멘텀에 적극 참여하는 상품이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부상과 정부의 ‘AI+ 이니셔티브’ 정책 등으로 중국 빅테크 기업 성장세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해당 ETF는 ▲텐센트(18.1%) ▲샤오미(15.4%) ▲알리바바(14.8%) 등 10개 핵심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최건우 기자 geon@